

전남 e-모빌리티, 동남아 진출 '시동'

베트남 하노이·응에안성 일대서 '전남 e-모빌리티 데이' 해외실증 협력 업무 협약·수출상담 등 베트남 진출 마련

전남도가 지난달 21일까지 6일간 베트남 하노이와 응에안성 일대에서 동남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남 이(e)-모빌리티 데이'를 개최해 도내 이모빌리티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영광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도내 이모빌리티 7개 기업과 함께 추진한 전남 이모빌리티 데이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 이모빌리티 시장 선점 및 인적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세계 4위 이륜차 시장으로 205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의 전동화를 목표로 하는 베트남은 전남 이모빌리티 해외 진출을 위한 핵심 국가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에선 베트남 응에안성 지방정부 관계자 면담을 비롯해 ▲도내 농업용 동력운반차 기업인 ㈜에이치비와 베트남 현지기업인 HSC(대표 호보 탄짜·Ho Vo Thanh Tri)와 생산공장 임대계약 체결 ▲한국-베트남 산업기술대(총장 호반담·Ho Van Dam)와 개인형 이동수단(PM) 해외실증 협

력 업무협약(MOU)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이 진행됐다.

베트남 응에안성 지방정부 관계자 면담에선 양국 지방정부의 이모빌리티 기업·대학·연구기관의 기술 및 인력교류 확대, 도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 등을 논의했다. 향후 전남도와 응에안성은 농수산업 및 관광 분야로 협력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에이치비와 베트남 HSC사는 3000평 규모의 생산공장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에이치비는 도내 시생산센터를 활용해 주요 부품을 생산·수출하고, 베트남 현지 조립공장에서 현지 인력을 활용, 완제품을 조립·생산해 관세와 인건비를 절감하는 전략으로 베트남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전남도는 한국-베트남 산업기술대와 개인형 이동수단 해외실증 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베트남 대학캠퍼스에서 국내 개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공유 서비스와 근거리 물류 실증을 2년간 실행하

며, 국내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전남 이모빌리티 데이 주 행사인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에선 해외 바이어 30여 명이 초청하고 ㈜에이치비, ㈜로웰에스엠, 마스터자동차 등 7개 기업이 참가해 총 51건, 274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도 이뤄졌다. 특히 ㈜에이치비와 베트남 HSC는 3년간 810만 달러(약 113억원), 약 3000대 규모의 수출계약에 합의했으며, 7월 개최하는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정부와 함께 본계약을 진행키로 했다.

전남도는 수출상담회 결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벤처부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이모빌리티 규제 해소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 만큼 후속 사업인 '이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도 유지해 도내 기업의 해외 수요맞춤형 제품개발, 해외 인증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앞으로 해외 지방정부 및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내 기업의 해외수출 지원 확대와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C형간염 퇴치사업, 세계가 주목

제11회 국제간학술대회서 성과 발표...하반기 전 시·군 확대

전남도가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한간이식협회 공동 주최로 지난 6월 29일까지 3일간 열린 제11회 국제간학술대회에서 '전남 C형간염 퇴치사업' 성과를 발표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사진>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27개국 195명을 포함한 총 1200명의 국내외 권위있는 전문가가 모여 최신 연구 성과와 치료 방법 등을 공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전남 C형간염 퇴치사업'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아 건강보험 및 정책 세션에서 발표를 요청받아 신민호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전남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이 발표했다.

전남도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전국 최초로 환자 발생이 높은 7개 군 지역 1만 3000여명을 검사해 확진 환자 37명을 조기 발

견했다. 중위소득 130% 이하 도민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전남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나머지 15개 시·군 도민 1만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 시범사업 기간 다국적 제약회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로부터 1억 7000만원 상당의 치료제를 지정 기부받아 저소득층 환자의 적기 치료를 진행, C형간염 퇴치에 기여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학술대회 발표로 전남도가 추진해 온 '전남 C형간염 퇴치사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도민의 C형간염 조기 발견 및 치료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쌀·전기 함께 수확” 영농형 태양광 단지 본격 조성

도,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 5만㎡ 규모...주민 자발적 참여

전남도가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 쌀과 전기를 함께 수확하는 국내 최대 규모 마을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 본격 나선다. 2022년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2년에 걸쳐 전남도, 영광군, 마을주민이 합심한 노력 끝에 지난달 26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월평마을 앞 약 5만㎡ 면적의 간척지에 3MW 규모로 추진된다. 1단계로 2024년까지 1MW 준공을 완료,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상업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월평마을 사례는 현재 평균 60kW 수준의 소규모 실증단계인 영농형 태양광의 국내 최초 상용화 모델로, 농지잡식도 없고 주민 수용성이 높아 지속가능한 최적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발전 수익을 토지소유자, 경작자뿐만 아니라 햇빛연금으로 마을주민까지 모두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농촌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교육연구원도 벼 재배농가가 영농형 태양광을 병행하면 20년간 335%의 농지 활용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도는 영농형 태양광을

본격 확대해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 능력을 높이고, 데이터센터와 첨단 RE100 수요기업을 유치하는 등 도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농형 태양광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법률 제정을 적극 건의중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영농형 태양광을 전남 미래 지역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월평마을 사업 경험을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투자 실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100% 전력공급 기반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소득 주꾸미 자원조성 박차 도, 4개 시·군에 20만 마리 방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3일까지 자체 생산한 어린 주꾸미 종자 20만 마리를 4개 시·군 해역에 방류한다. <사진> 이번 방류하는 어린 주꾸미는 전남 해역에서 성숙한 어미를 확보해 자원조성연구소 인공 산란장에서 1달여 동안 부화, 성장시킨 종자다.

최근 우리나라 주꾸미 생산량은 2023년 2204t으로, 이 가운데 전남지역 생산량은 383t, 전국의 약 17%를 차지한다. 가격은 1kg 13마리 기준 약 5만~6만원으로, 전남 연근해 어업인의 주요 소득품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장마철 대비 산사태 대응 총력

선제적 주민대피체계 구축...대책상황실 운영

전남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 점검 등 산사태 대비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인명피해가 없는 여름 나기를 위해 '전남형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과 동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피 대상과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해지기 전에 미리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마을을 지정하고, 경찰·소방, 마을이장·청년회 등이 대피를 돕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모든 재난을 대상으로 대피도민에게 '재난안심꾸러미'를 지급, 대피에 따른 불안과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산사태취약지역 2281개소를 포함한 산사태 피해우려지 3827개소를 점검했다. 615개소에 대해 현장 조치, 70개소에 대한 시설 보강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6487가구

(8929명)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피소를 쉽게 알 수 있게 모든 개소에 안내판과 현수막 등을 부착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취약지역 사전예찰,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상황전파, 선제적 주민 대피, 피해복구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26일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화순군 도곡면 덕산마을을 찾아 산사태 사전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계곡부의 추가 침식여부, 배수로 상황, 사방시설물·대피소 관리 상태 등 사방시설 현황을 살폈다. 현장 점검지인 덕산마을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마을을 둘러싼 계곡부의 침식이 진행돼 토석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23년에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하고 계곡부 정비를 실시한 곳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